

가부장적 권력해체 · 여성해방 쟁취를 위한

여성해방연대

www.femini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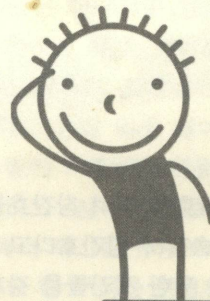
〈여성해방연대〉 소식지 창간호 / 2004년 4월 통권8호

2004년 4월 2일 발행 / 발행 여성해방연대 / 편집 여성해방연대 편집위원회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80-3 2층 TEL 053-421-4210 결에성폭력상담소:053-421-3737 Ofeminist@hanmail.net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1020 3층 TEL 042-486-0121 womlib-tj@orgi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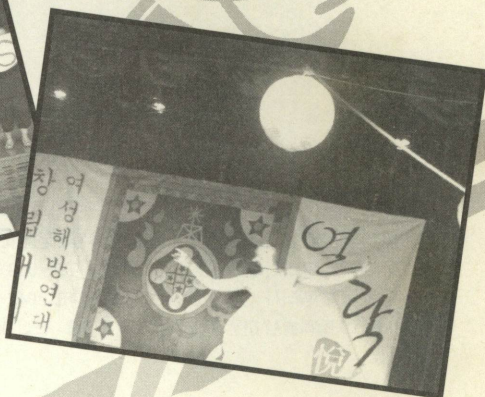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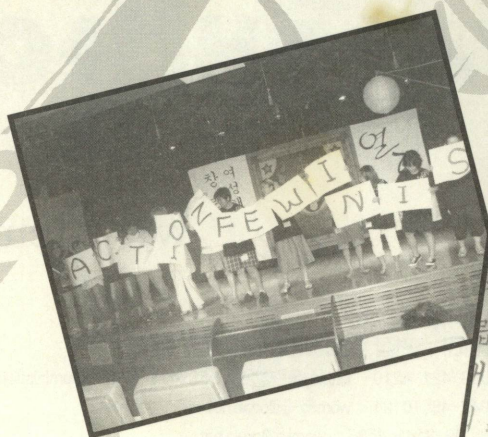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6-6 3층 TEL 02-3141-4535 womlib@orgio.net



‘상근활동가’라는 키워드로 들려주는 이야기

1. 편집실에서 창간호를 내며
2. 회원칼럼 앞뒤가 잘려나간 다큐멘터리, 민족주의와 성폭력 사이
- 3.4.5.6. 기획 상근 활동가 라는 키워드로 들려주는 이야기
- 7.8. 우리시대이여자 피자매연대
- 9.10. 즐거운 문화상자 꽃보다 아름다워
11. 여성사 키워드 결혼법·혼인법
12. 회원수필 정말 결혼 안 했어요?
13. 특집 유랑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14. 활동소식

우리의 이야기



오랜만에 소식지를 낸다.

지난 해 8월 마지막 준비호를 내며 창간호를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솔직히 창간호라고 별다른 건 없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역시나 우리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변명도 덧붙여야겠다.

창간호를 기획하면서 여성해방연대 내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회원칼럼〉을 신설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흔적이다. 또한 지금껏 ‘주장하는 바’를 주로 담아온 〈기획글〉을 다르게 구성한 것도 그러한 일환이다. 이번 〈기획글〉은 ‘여성해방, 가부장적 권력 해체’라고 적힌 쪽지 하나 달랑 들고 길을 찾기 위해 길 위에 섰던 이야기를, ‘상근활동가’라는 키워드로 도란도란 들려주는 목소리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성해방연대 활동과 조직운영에 대한 절절한 고민을, 탄성과 한숨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온통 탄핵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있는 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해서 약 1500명의 이주노동자를 연행해 갔다. 누군가에 의해 이름 붙여진 ‘탄핵정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소리없이 인권을 짓밟히는 ‘탄압정국’이다. 거대한 함성에 파묻히는 다른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목소리도 밖으로 꺼내 웅얼웅얼 해 보자. 2004년 3월... 응, 어때? 무슨 애길 하고 싶어? 무엇을 원해?

이 편향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누군가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번 소식지가 우리들의 수다를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